불안한 한빛원전…또 증기발생기 관막음 제한 완화 추진

3·4호기 이어 1·2·5·6호기 관막음 제한치 상향 요청

승인 땐 설계보다 제한치 높여 전체 가동하는 유일 원전

전문가들 "불안한 가동 증거"…환경단체 등 반발 예고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 한빛원전 1·2·5·6호기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 관막음 제한치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원자력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원안위가 한수원의 승인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한빛원전은 국내 4곳의 원전본부 가운데 전체 원전의 증기발생기 관막음 제한치를 설계치보다 완화하고 원전 가동을 이어가는 유일한 사례가 된다.

미국 등 원전 선진 국가에서조차 수십년 전부터 사용을 중단한 '인코넬 600 (합금의 일종)' 소재로 제조된 한빛원전 증기발생기는 그간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 원자력 전문가 등으로부터 꾸준히 위험성 경고와 즉각적인 가동 중단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한수원은 되레 안전을 위해 정해둔 관막음 제한치를 전체 원전에 걸쳐 상향시키는 절차에 돌입,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6월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 제한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 한빛 1·2호기와 부산의 고리 3·4호기도 증기발생기 관막음 제한치를 상향조정 해줄 것을 원안위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빛 3·4호기는 지난해 11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극렬한 반발에도 원안위가 관막음 제한치 상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설계 당시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원전이 가동 중이다.

한수원은 한빛 1·2호기의 경우 설계 당시 5%로 제한했던 관막음 허용률을 7%로, 한빛 5·6호기는 8→18%로 완화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기발생기를 구성하는 세관에서 결함(균열·파손)이 생기더라도 18%(1·2호기는 7%)까지는 해당 세관을 막고 원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엄청난 위험성을 안고 가동되는 원전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증기발생기를 구성하고 있는 8214개의 세관(1·2호기는 5626개)의 관막음 허용률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웃돌 경우 즉각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할 정도로 안전과 밀접한 사항이다.

원전 전문가들은 '한수원이 한빛원전 증기발생기 전체에 대해 관막음 제한치를 완화해달라고 규제기관에 요청한 것은 한빛원전 증기발생기가 그만큼 불안하게 가동 중이라는 증거'라는 입장이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결함으로 손상될 경우 방사성 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고, 나아가 다수의 세관이 파열할 경우엔 냉각재 고갈에 따른 노심 용융이나 다량의 방사성 물질 외부 유출을 야기하는 재앙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원자력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국내 원전 대다수도 관막음 허용률을 5~8%로 규제하고 있다.

한빛원전 증기발생기 관막음 현황(지난 5월말 기준)은 ▲한빛 1호기 A증기발생기 1.69%(95개 관막음), B증기발생기 0.59%(33개), C증기발생기 0.46%(26개) ▲한빛 2호기 A증기발생기 1.91%(108개), B증기발생기 3.41%(192개), C증기발생기 1.39%(78개) ▲한빛 3호기 A증기발생기 3.97%(310개), B증기발생기 4.24%(332개) ▲한빛 4호기 A증기발생기 8.50%(662개), B증기발생기 6.70%(521개) ▲한빛 5호기 A증기발생기 3.70%(304개), B증기발생기 2.87%(236개) ▲한빛 6호기 A증기발생기 0.84%(69개), B증기발생기 0.63%(52개) 수준이다.

한빛 3~6호기 증기발생기 8대는 2018년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8000억원가량을 들여 조기 교체가 예정돼 있다.

원전 설계 경험이 있는 이정윤 기술사(원자력과 미래 대표)는 "원전의 설계수명 전 증기발생기 전체에서 결함이 다수 발생하고 그 원인조차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준치 완화에 목을 매는 건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출신 원전 전문가 한병섭 박사도 "증기발생기 세관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냉각재가 순환하는 원전의 핵심 설비로 설계 수명 이전에 결함이 증가해 규제치에 근접한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반드시 결함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국형 원전(한빛 3~6호기) 증기발생기는 재질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결함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원전 운영변경허가 신청 전 관막음 상향 조건에서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서 이물질 8점 발견

용접봉 등 7점 제거…1점은 기술력 부족 등 회수 못해

유입 경로 밝히지 않은 채 정비 마무리…안전성 논란

영광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용접봉과 금속 칩 등 이물질 8점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원전 측은 지난 5월 시작된 제22차 계획정비(정기점검) 과정에서 길이 100㎜, 폭 7㎜에 이르는 금속 칩 등 이물질 8점 가운데 7점은 제거하고 나머지 1점은 기술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증기발생기 정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한빛 3호기 점검 중 금속 너트 등 이물질 80여 점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원전 안전성을 두고 적잖은 비판을 산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안전성 논란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24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정기점검 중인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에서 지난 5월께 용접봉, 금속 칩 등 이물질 8점이 발견됐다. 한빛 2호기는 증기발생기 A·B·C등 총 3대가 운용 중인데, 내시경으로 안전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각각 1점, 3점, 4점씩의 금속성 이물질이 확인된 것이다.

원전 측은 규제기관에 이물질 발견 사실을 보고하고 제거가 가능한 7점은 회수했지만 성인 엄지 손가락 크기만한 세관과 세관의 비좁은 틈새에 낀 2.5㎜ 길이의 금속 선은 제거하지 못하고 정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수년 전 증기발생기 보수 과정에서 용접봉 등 이물질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한 것을 이번에 발견하고 수거했다"면서 "수거하지 못한 금속선의 경우 이를 내부에 남겨두고 가동하더라도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규제 기관과 한수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원전 측은 이물질 유입원 제거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민간감시센터 측에 해당 사안을 설명했다는 입장이지만, 용접봉을 제외한 금속칩, 금속선 등 이물질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입 경로를 밝히지 않고 있다.

원전 핵심 시설인 증기발생기를 점검한 뒤 용접봉 등을 누락하고 가동을 수년간 이어왔다는 점에서 원전 측이 평소 시설 및 부품 정비를 느슨하게 해온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증기발생기 세관에는 원자로에서 뜨겁게 달궈진 냉각재가 순환하면서 세관 밖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냉각재를 증기로 변화시킨다. 원전은 이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데, 금속성 이물질 등의 충격 등으로 방사성 물질이 흐르는 세관이 깨지는 등 결함이 생길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원전 전문가들 의견이다.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관계자는 "한빛 2호기 정기점검 때 세관을 대대적으로 보수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용접봉 등 이물질 발견 사실은 설명듣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3호기에서 무더기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돼 안전과 관련 큰 논란이 있었던 만큼 해당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뒤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광=박형진기자 pyj4079@

검찰, 김용구 전 자문관 여죄 3건 추가 기소

건설사 2곳 등 금품수수 혐의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관급공사 수주 알선을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구(63)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에 대한 여죄 3건을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남구 첨단도시산단 조성 사업 참여를 알선·청탁해주겠다며 용역계약 체결 명목으로 S건설사로부터 3억2560만원을, 송정역 환승복합센터 개발사업 알선 대가로 또 다른 S건설사로부터 1억375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J문화재단 명의를 빌려 광주시 공무원을 속이고 용역계약을 체결해 97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전남지역 중소건설업체인 S건설사로부터 1억9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모두 병합·심리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재활용 폐건전지 선별 광주 북구청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24일 북구 건국동의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환경오염예방과 폐건전지 자원재활용을 위해 수거한 건전지를 선별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 항소했다.

2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18년을 받은 피고인 3명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받은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을 들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양형 부당과 일부 무죄 판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 공모 혐의 부분을 인정하되 '초기 사전공모' 부분을 무죄로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부부싸움 중 남편이 방화 딸 숨지고 아내 중태

23일 밤 10시10분께 해남군 해남읍 박모(51)씨의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박씨의 딸(16)이 숨지고 아내 허모(53)씨도 유독가스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남편 박씨가 홧김에 거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 그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15억대 챙긴 '짝퉁 만물상'

쌍나팔

○…중국에서 만들어진 짝퉁 명품을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유통,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짝퉁 만물상' 일당이 경찰에 일망타진.

○…24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이모(여·37)씨 등 33명은 지난 2013년 9월 3일부터 최근까지 무안군 한 양파즙 제조공장 창고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조된 해외 명품 브랜드 상품 2만6731점을 시중에 판매해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

○…이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래대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고 구매자들에게 상품을 발송하면서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는데, 경찰은 "이씨 등은 중국 위조상품 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해 제품의 질을 확인하고 TV 드라마를 통해 유명해진 짝퉁 상품을 국내에 들여왔다"고 설명.

/무안=임동현기자 jdh@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6타경 8327	1	북구 용봉동 1060-2 우영아파트 9층 906호 61.20㎡[준공검사미필로건축물대장이발급되지않아공용면적및분양면적확인불가]	아파트	92,000,000 92,000,000	현황조사당시관리비225,000원미납된상태
2016타경 9269	1	광산구 산월로80, 1306동 14층 1406호 [산월동,부영사랑으로] 84.9931㎡	아파트	266,000,000 266,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6타경 7720	1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496 341㎡	대	74,483,41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및수목포함.지적도상맹지,소폭의도로개설됨
		장성군 삼서면 유평문암길19 87.93㎡ 부속건물 창고16.52㎡ 제시외 창고 등 84㎡,수목등1식[물건번호1:인접지와지적경계불명]	단독주택	74,483,410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6타경 7584	2	북구 풍향동 22-36 풍향동대주콘도[주]연립주택 3동 4층 403호 115.9119㎡	다세대	179,000,000 179,000,000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6192	1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산27 1488㎡[김금학지분1/3전부.인근427번지소유자김용태[사망]의화장약6평정도가본건에소재하는것으로보이나정확한여부는측량요]	임야	3,124,800 3,124,8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 327 1507㎡[김금학지분1/4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4,519,800 4,519,8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3	동소 312 3103㎡[김금학지분4분의1전부.분묘소재]	임야	6,826,600 6,826,6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6타경 7164	1	화순군 남면 남계리 산145 12000㎡	임야	57,114,200 57,114,200	일괄매각
		동소 산147-1 11306㎡	임야		
		동소 산147-2 20628㎡	임야		
	2	동소 산149 18645㎡	임야	24,238,500 24,238,50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6타경 7720	2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496-3 1279㎡[지적도상맹지.현황휴경지]	답	23,022,000 23,02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9030	1	곡성군 겸면 산정리 산229 6050㎡[북측하단일부인접과수원과지적경계불명,측량요]	임야	12,100,000 12,100,000	지적도상맹지.분묘소재여부불명
2016타경 10054	1	나주시 대호동 941-2 1488㎡[현황맹지.공부상전이나임야화된상태]	전	22,320,000 22,3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6타경 7584	1	북구 안산로57, 3층 307호 [오치동,명진티엔씨] 35.5400㎡	근린시설	99,000,000 99,000,000	
2016타경 7973	1	서구 시청로67, 2층 14호 [치평동,프리미엄아울렛] 64.87㎡[칸막이형식의벽을설치하여두부분으로나눠져있으며2/3부분은임차인최광현[노는아이],1/3부분은임차인나혁진[세정웨딩]이점유중]	근린시설	265,000,000 265,000,000	
[자동차,중기]					
2016타경 12081	1	사용본거지:광주 북구 양산택지로37번길 17 303호 [양산동] 등록번호:60서8021 차명:크루즈1.8 DOHC 연식:2012	자동차	10,000,000 10,000,000	보관장소:광주남구송암로124-3송암주차장
[기타]					
2016타경 4417	1	영광군 법성면 덕흥리 550-33 446㎡	창고용지	220,139,700 220,139,700	일괄매각.목록3,6일부접도구역,기계기구3,4,6,7,10,11은건물내부설치되어있어목록7감정가에포함,기계기구1,2,8은목록과현황차이가있어현황기준으로평가
		동소 550-35 100㎡	창고용지		
		동소 550-9 422㎡	창고용지		
		동소 550-21 128㎡	도로		
		동소 550-34 333㎡	임야		
		동소 550-36 85㎡[현황잡종지]	전		
		영광군 법성면 영광로 249-30 280㎡ 제시외 창고 등 55.2㎡,기계기구 11식[물건번호1:제시외건물,기계기구포함.공장저당법제6조기계기구목록참조]	제조업소,창고시설		
2016타경 6109	1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215-1 1616㎡[수목포함매각.분묘1기소재.지적도상맹지]	과수원	21,400,000 21,4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6659	1	광산구 소촌동 386-1 686㎡	잡종지	566,329,300 566,329,300	일괄매각.공장저당법제6조기계기구목록참조
		광산구 소촌로 69 에이동92.67㎡ 비동52㎡ 제시외 유류탱크 등[물건번호1:기계기구목록포함.감정평가당시운휴중]	주유소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6. 11. 9.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11. 16.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10. 25.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전계수